

제19대 총선 변호사 85명 출사표

당선자는 여야로 갈라져도 같은 뿌리 토대로 소통 위한 역할해야 대한변협, 선거법 자문·정치후원금 기부 등 실질적 지원 방안 검토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총 85명의 변호사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심판대에 섰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5명, 민주통합당 38명, 통합진보당 3명, 진보신당 1명 등이다.

18대 총선에서 121명의 변호사가 출마, 59명이 당선된 것과 비교할 때 19대 총선은 법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원인으로 출마 규모 자체가 대폭 감축된 셈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진영 변호사(사법시험17회)가 서울 용산구에 출마하는 등 모두 35명이 이번 총선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최재천 변호사(29회)가 서울 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새누리당보다 많은 38명이 공천을 통과해 지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통합진보당은 조성찬 변호사(42회)가 안산 단원갑에 출마하는 등 3명이 이번 총선에 나왔고, 진보신당은 김한주 변호사(42회)가 경남거제에 출마한다.

비례대표로는 정수경 변호사(43회)가 새누리당 비례번호 41번, 진선미 변호사(38회)가 민주통합당 비례번호 5번, 이재화 변호사(38회)가 30번, 김영술 변호사(28회)가 32번으로 민주

통합당은 비례대표에 변호사를 3명 배치했다.

대한변협 사무차장을 지낸 강연재 변호사(44회)는 청년희망플랜의 비례대표 1번을 꺾었다.

국민생각당의 윤형모 변호사(23회)는 인천 연수구에서 출마한다. 무소속으로는 이상수 변호사(20회) 등 6명이 출마했다.

다각도 교육으로 지원
변협, 외부강의와 연계도

지난해 대한변협 신영무 협회

장은 공약사업으로 대한 변협 내에 정치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변호사풀을 만들어 선거법에 대한 자문, 선거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연수원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국회의원을 비롯 구의원, 시의원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왔다.

또한 변호사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의식의 향상과 법치사회를 향한 국회에서의 전문가적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다

각적인 교육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화재단세미나나 평화아카데미 같은 외부 기관의 특별강연과정에 변호사들의 참여를 권유해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 정치의식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절차에 따른 소규모 정치후원금 기부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정치후원금의 경우 연간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선후배들을 국

회로 보내는 후원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신영무 협회장은 “여야로 갈라져 있는 다수의 변호사 국회의원들은 근본적으로 법조인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극한 대결을 피하고 여야가 소통할 수 있는 중심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강조하고 “개인적인 입신출세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법치국가의 확립이라는 방향성과 철학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민생을 위한 한 가지 법이라도 정확히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 후보들에게 당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신영무 협회장과 임원진은 여야 변호사 후보들의 각 캠프를 방문해 격려하고 성원할 방침이다.

【엄상의 공보이사 eomsangik@hanmail.net】



세계변호사협회(회장 아키라 가와무라, 이하 IBA) 아시아본부가 지난 21일 논현동 리츠칼튼호텔에서 대한변협 신영무 협회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IBA 아시아본부는 영국의 IBA

세계변호사협회 亞본부 서울서 문열어

신영무 협회장, “여기가 아시아 법률시장 허브가 된다는 뜻”

본부와 브라질의 남미지역 본부, 아랍에미리트의 중동지역 본부 등과 함께 IBA가 아시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IBA에서 주최하는 다수의 국제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면서, 서울이 아시아 법조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영무 협회장은 “사무소 개소로 서울이 아시아 법률시장의 허브가 될 것”이

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IBA 아시아본부의 서울 설치 요인에 대해 아키라 회장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대한변협의 지지와 노력으로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 후 변협과 서울시, IBA는 “국제 법조인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도모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조인을 위한 금융경영과정 모집안내

Finance and Business Program for Lawyers

M&A와 같은 기업의 투자이사 결정, 금융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 규제·감독 등의 이슈는 법률 지식뿐 아니라 경제,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국내 최초로 개설된 법조인을 위한 금융경영과정으로서 법무와 연관된 회계, 재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법률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교육목적이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법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관련 경영 지식을 함께 공부하고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 Module 1 재무제표 분석과 회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이해 / 조세 / IFRS 도입에 따른 변화

▶ Module 2 기업가치평가와 기업재무

기업가치평가의 다양한 기법과 의미 / 투자이사 결정 / 자본조달과 자본구조 / M&A와 구조조정

▶ Module 3 산업조직과 공정거래

산업조직론의 기본 이해 / 시장획정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제적 영향

▶ Module 4 자본시장과 자산가격

자본시장의 구조 / 주식, 채권의 가격 형성과 거래과정 / 파생상품의 이해 / 자본시장 관련 규제

교육기간 2012년 5월 2일(수) ~ 7월 25일(수) 총 12주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19:00 ~ 22:00

교육장소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내 강의장

문의처 Tel 02-2123-4268 | http://sim.yonsei.ac.kr/



제18회 변협 포럼 지상 중계 법률티스님 편

“새로운 시대에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



※ 대한변협은 지난 22일 변호사회관에서 법률티스님을 초청, 제18회 변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강연 내용을 발췌 요약해 소개합니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대적 변화가 닥치고 있는가. 크게 국내외와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세력판도의 변화, 이상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내적 변화

1960~70년대는 산업화가 시대적 과제였다. 이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됐다. 그러나 이것은 배고픈 시절에나 통용될 수 있었다.

배고픔을 벗어난 1980년대는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였다. 이 과제를 산업화 시대 리더십은 읽지 못했다. 그래서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고,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위주의와 싸울 비타협적 투쟁 리더십이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시대적 변화를 맞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관심사는 행복이다. 그래서 일자리와 육아, 보금자리, 노후 복지 등에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고, 담보해주고, 사회의 안전망을 갖춘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이때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의 리더십이다. 각계각층에서 여러 요구가 제기되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변화

우리는 우리 체제의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북한과 비교할 때 모든 분야에 있어 절대적인 우세에 있는 만큼 민족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전쟁이 가져올 피해를 생각할 때, 결국 남북은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용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다.

동북아시아 세력판도의 변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환경도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양극체제가 도래했다.

이러한 세력의 변화 시기에는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양 세력의 변화를 읽으면서 대처해야 한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는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우리 사회지도층이나 국민이 얼마나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국가의 장래를 위해 남남갈등과 남북갈등, 미국과 중국을 향한 세력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근 경찰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여중생 사건을 수사하면서 학부모의 신고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은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학교와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학내 문제가 커져 민·형사 사건으로 전개되는 등 법적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교라는 특성상 당사자의 지위(교사, 학생, 학부모 등)나 입장 등에 따라 그 해결과정이 편향·왜곡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사안에 대한 조정과 화해 등 중재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통상 위촉 일로부터 2년이며, 협의에 의해 연임도 가능하다.

또한 대한변협은 지난 15일 고문변호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고문변호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무지침서'를 발간해 각 학교와 고문변호사에게

학교 고문변호사 위한 매뉴얼 발간

15일 '실무지침서', 전국 453개 초중고에 배포

불합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자칫 학내 분쟁을 외부 기관에 의존해 해결할 경우 교육현장의 자치권과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어 대한변협과 한국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1학교 1 고문변호사제'가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 고문변호사'는 학교 내 전담 법률자문 외에도 교육관계법상 단위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학교교육활동을 지원, 각종 분쟁

배포했다. 실무지침서에는 고문변호사 제도의 이용주체 안내, 고문변호사가 학교에 배치된 직후에 할 일, 법률지원 요청 방법 및 유의점, 상담 이상의 법률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 제도의 성패는 학교와 고문변호사간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가 가능한 통로를 적극 활용해 이용주체가 고문변호사와 적극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25時
-231-
< 존재의 이유 >
변호사 이영욱

대표님은 재판에 자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 다녀와~

의견서나 서면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닌데.. 대체 사무실에 왜 나오시죠?

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그래도 왜 그러지 몰라도 내가 없으면 사무실이 엉망이 되더라구~

차별화된 광고!
여기, '대한변협신문'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2087-7754

‘차가운’ 법조인들이 쓰는 ‘따뜻한’ 사람 이야기

대한변호사협회 휴먼 감성 문학지 **The WAY** [더 웨이]



- 인물탐구
‘한국의 장자방’ 윤여준 / 염상의
- 테마코너 · 첫사랑
첫사랑 그 애 / 최종갑
첫사랑은 아름다운 것 / 유재복
유치원생의 첫사랑 일기 / 정준길

- 소설
국가보안법 위반죄 / 유종원
- 에세이
나는 변호사다 / 백현석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02-2087-7752
구독료 : 1년 12,000원(날권 3,000원)

종교인도 법대로 과세하라

대한변협, 논평 내고 소득세 납부 촉구

6년동안 끌어온 종교인 과세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종교인 과세논란은 2006년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의뢰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현해 “종교인도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볼 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발언하면서 재점화됐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우리의 세법에는 성직자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없는데도, 정치권과 정부가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특권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법대로 바르게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밝

혔다. 또한 종교인에게는 “소득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유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OECD국가의 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득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며 “이제는 종교단체마다 재정운용 및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성직자의 개인주머니와 단체의 재정을 구별해 종교재산이라도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소득이 생긴 만큼 세금을 납부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종교인들은 일제시대 이래로 정권의 비호 아래 세금을 면제받아 왔고, 성직자들은 그런 특권과 타협해 번영을 이뤄왔다”

며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이제 법 위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적 성역은 사라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시설은 9만여 개, 성직자의 수는 36만 5천명, 공식적인 헌금은 연간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역술인협회나 무속인연합회에 소속된 인원도 6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당국의 그간 원론적인 견해를 재확인한 것일 뿐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반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적인 한국 개신교계 입장을 대변해 온 한국교회언론회도 21일 논평을 내고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국가를 위해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성직자들이 굳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설

변협이 변호사정치인에게 해주어야 할 일

각 정당이 신상품을 국민 앞에 내놓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공천이 그것이다. 결국 객관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룹은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회 내에 변호사가 너무 많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병원에는 의사가 많아야 하듯 법을 만들어 내는 국회에 변호사는 당연히 많이 필요한 것이다. 거리의 시위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정치적 구호도 결국에 가서는 한 줄의 법률로 귀착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국민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대다. 화장실 법 하나만 만들어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 국회의원 때문에 낙후된 한국의 화장실 환경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랐다. 또 자전거법 하나만 목표로 했던 국회의원이 있다. 그의 덕으로 전국에 자전거도로가 생기게 됐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황된 거수기보다는 그런 의원들이 더 실질적이다.

대한변협은 법전문가를 국회에 납품하는 업체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부에 보낸 변호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그것을 위해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대한변협은 여야 정당에 골고루 퍼져있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정치권의 극한투쟁의 중간에서 완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향해 전문가들이 하나의 법이라도 정교하게 완결시킬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만들어 행복입법의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들이 시대적 흐름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정치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광야에서 뛰는 그들의 등대가 되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지원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들이 조금씩 후원금을 내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법제정에 전념하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신청 인터넷으로 하세요”

서울구치소가 팩스로 접수하던 변호인 접견신청 방법을 손쉽게 바꿨다. 이메일 계정(seoulcdc@korea.kr)을 신설해 인터넷으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메일로 접견을 신청할 경우, ‘메일 수신 확인’ 만으로 접수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수 즉시 답변 메일이 오기 때문에 확인 전화를 할 필요도 없어졌다. 접견신청서 원본은 방문 당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구치소(031-596-1589~90)로 문의.



대한변협신문 ©2012 2000년 3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06743

대한변호사협회 발행인 신영무 협회장 편집인 엄상익 공보이사 인쇄인 최낙관

- 대표 전화 02) 3476-4000
- 팩시밀리 02) 3476-2771
- 기고·기사제보 02) 2087-7753
- 구독·광고문의 02) 2087-7754
-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 전자우편 news@koreanbar.or.kr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협회	
총무과	02) 2087-7715
법제과	02) 2087-7723
인권과	02) 2087-7733
회원과	02) 2087-7744
홍보과	02) 2087-7754
심사과	02) 2087-7762
사업·기획과	02) 2087-7773
국제과	02) 2087-7784

대한변협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에 관한 세미나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만명에 달하고 매년 약 3천명씩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남북한의 사회·문화 및 법제도적 차이점과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부재 등 여러가지 장애 요인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우려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2. 4. 2.(월) 14:00 ~ 16:00

발표자 이승주 북한이탈주민, 외국어대학교 학생

장소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홍정금 북한이탈주민, 연세대학교 학생

주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혜 서울남부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사회자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황용환 변호사, 북탈민 인권소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야구감독 김성근 초청 도서낭독회

서울지방법변호사회(회장 오옥환)는 지난 13일 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전직 한국 프로야구 최고 감독이자, 독립리그 구단인 고양 원더스의 초대 감독으로 돌아온 '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을 초청해 김 감독의 자전적 에세이 '김성근이다' 도서낭독회를 가졌다.

이날 도서낭독회에는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김 감독은 위기상황에서도 팀을 맡아 최고의 팀으로 변화시키는 그의 특출한 리더십과 야구에 담긴 그의 인생관과 철학을 전달했다.



대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지방법변호사회(회장 김종기)는 지난 15일 모금된 2월분 성금 545만원 중, 200만원을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에, 170만원을 대구남산복지재단 오뚝이교실에, 175만원을 대구장애인배드민턴협회에 각각 기탁했다.

대구회는 1998년부터 모금을 시작해 2012년 2월까지 7억 5230여만원을 사회 각단체에 기탁했다.

변호사가 사는 법

발신자표시기능 유감



금태섭 변호사

“옛날이 좋았지”라는 말은 보통 노인들이나 하는 소리로 생각한다. 누구나 과거를 생각할 때는 좋았던 일을 주로 떠올리고 힘들었던 일은 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다보니 연세 드신 선배 변호사들이 후배들 앞에서 과거 황금시절을 자랑할 때면 후배들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늘상 하는 자기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기억을 못 하

는데요.” 안방에서 이런 대답이 들려온다. “누구시냐고 여쭙봐.” 나는 수화기에 대고 말을 한다.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이라고 말씀드려라.” 다시 수화기를 막고 소리를 지른다. “○○○이시라는데요.” 대답이 들려온다. “안 계신다고 해라.” 나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 “지금 안 계시는데요.” 전화를 건 사람은 지극히 의심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는 기색으로 “나중에 들어오시면 ○○○이 전화 드렸다고 말씀드려라”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는다. 그렇다. 그 시절 변호사의 휴일 낮잠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휴대전화에 발신자표시기능이 도입된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제가 급한 불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습시다”라는 변명은 전혀 통할 수 없다. 설사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신기한 마음에 나도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6개월 후 누구나 발신자표시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족쇄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짐작도 하지 못했다.

사실 발신자표시기능은 전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생긴 것이고 많은 경우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폭력적인(!) 면이 있기도 하다. 전화를 받는 쪽에서는 누가 전화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도 전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전화를 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화면에 내가 전화한다는 문자가 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된다. 어떤 의뢰인의 전화도 무시할 수 없는 변호사들로서는 도망갈 길이 없어진 것이다.

고객에 대한 변호사들의 서비스

휴대전화에 이 기능이 도입된 이후 “급한 불일 있어 전화를 못 받았습시다”라는 변명 통하지 않게 돼

셔서 그렇지, 그때라고 지금보다 특별히 좋았겠어’ 라고 생각한다.

글쎄, 이 경우는 좀 다르다.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내 스스로 변호사가 된 입장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 옛날이 정말 좋았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휴일에 집에서 절대 전화를 안 받으셨다. 의뢰인이 전화를 걸어서 ‘귀찮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보통 내가 받는다.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손님들’은 아버지를 찾는다. “아버지 계시냐?” 나는 한손으로 수화기를 막고 소리를 지른다. “아빠, 누가 찾

화를 했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신을 하지 않으면 항의를 받는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변호사는 메인 몸이 된 것이다.

발신자표시기능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이다. 당시 지방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나는 같이 일하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놀라곤 했다. 내가 전화한 사실을 알고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안 가르쳐주다가 결국 자기 휴대전화에는 전화한 사람의 이름이 뜬다고 알려주었다. 그때만 해도 발신자표시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수준은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매우 많다. 소수의 변호사들만이 활동하면서 일각으로부터는 특권층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물론 없다. 그러나 휴대전화 때문에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의뢰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보면 때때로 “안 계신다고 해라” 할 수 있던 시절이 부럽기도 하다. 급한 일도 아닌데 주말까지 전화를 하는 의뢰인의 전화를 받으면서 한달에 하루 정도는 발신자표시기능이 사라지는 통신장애가 일어났으면 하는 엉뚱한 마음이 드는 것은 비단 나만의 심정은 아닐 것이다. kts@lawkh.com

www.rainbowlaw.or.kr

결혼이민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온라인법률상담센터

www.rainbowlaw.or.kr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다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국 100여명의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분야별로 상담 해드리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의 법률구조로 연결해드립니다.

상담 분야

- 국적법
- 결혼중개업법
- 민사법
- 행정법
- 출입국관리법
- 형사법
- 가사법
- 기타

상담 방법

www.rainbowlaw.or.kr 로 방문

↓

원하는 언어선택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 선택)

↓

공개 상담 혹은 비공개상담으로 상담 글 게재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답변 도착 알림)

↓

변호사 답변 완료

변호사법 질의회신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어 사건을 개척해온 막이겨 변호사. 자신이 법무사와 차별화된 업무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광고할 방법을 고민하다 생활정보지를 생각해냈다.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생활정보지에 법원 경

업무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광고방법이라고 알려주었다.

생활정보지에는 각 지역별 아파트의 경매목적물의 구분, 위치, 면적, 감정가, 최저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 있을 뿐 특정 경매사건번호나 경매목적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광고의 내용도 변호사업무공

생활정보지에 경매현황과 함께 무료법률상담 광고 게재는 가능

매 현황과 함께 부동산 경매 업무 및 그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다.

막이겨 변호사가 광고를 내도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혹시 무가지여서 안 되고 변호사 품위에 저촉되는 건 아닐까?

이에 대해 변협이 속시원한 해답을 주었다. “된다”고.

변협은 법원 경매와 관련한 상담 및 입찰 대리 등 변호사의

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이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는 국내외의 신문·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등에 광고할 수 있으며 특정사건과 관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요청이나 부탁받지 않았는데도 방문, 전화, 문자 메시지 송부 등으로 사건을 맡겨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법조윤리協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사회봉사활동 원고 모집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권광중 변호사)가 법조인들(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 단체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소개하는 원고를 모집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만큼 법조계 전반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윤리협의회는 협의회 홈페이지(www.lepcc.or.kr) 내

에 ‘법조계 사회봉사활동’ 난을 신설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단체 포함)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담은 글을 게재하기로 했다.

투고를 원하는 법조인은 원고와 관련 자료를 4월 30일까지 법조윤리협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02-3476-4061, lepcc@lepcc.or.kr로 문의.

동정

홍, 02)3703-1177

● 결혼

▷안동한 변호사(인천회·74년생) 본인=3월 17일(토), 032)874-3311

▷강문종 변호사(부산회·47년생) 장녀 유정=3월 18일(일), 051)502-0030

▷호규찬 변호사(서울회·80년생) 본인=3월 24일(토), 02)2002-1678

▷황다연 변호사(서울회·81년생) 본인=3월 24일(토), 02)590-2900

▷김명진 변호사(서울회·81년생) 본인=3월 25일(일), 02)599-9977

▷한상호 변호사(서울회·50년생) 장남 경록=4월 6일(금) 오후 6시 30분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 부음

▷이현 변호사(서울회·61년생) 부친상=3월 10일(토), 02)3481-7703

▷한기준 변호사(서울회·54년생) 부친상=3월 13일(화), 02)2679-6311

▷신태시 변호사(대전회·60년생) 빙모상=3월 14일(수), 042)471-1707

▷이승섭 변호사(서울회·58년생) 모친상=3월 16일(금), 02)591-8400

▷이명재 변호사(서울회·66년생) 빙모상=3월 16일(금), 02)2672-8280

▷송동원 변호사(서울회·52년생) 모친상=3월 19일(월), 02)3404-0120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지역 사무소 개소 기자회견

“IBA, 우리 청년변호사들에게 기회될 것”



IBA(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지역 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21일에는 곧바로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아키라 가와무라 IBA회장, 마크 엘리스 IBA사무총장,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 손도일 대한변협 국제이사, 최정환 전 변협 국제이사가 배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아키라 회장은 “IBA는 500만 명의 변호사를 회원을 하는 세계적인 변호사단체이며 변호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대 단체”라고 소개하고 “IBA 아시아지역 사무소 서울개설에 도움을 주신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영무 협회장은 “IBA 연차총회에는 보통 6000여 명의 변호사가 세계 각지에서 모인다”며 “IBA 아시아지역사무소 서울개설은 우리 법률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한국 법률가들의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개방한 일본 법률시장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아키라 회장은 “일본은 1986년에 개방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셈인데 개방으로 인해 일본 변호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국경을 넘는 서비스를 습득할 수 있었다”며 “개방

서울사무소서 각종 인턴십, LLM, 연수기회 등 제공 아키라 회장, 신영무 협회장 등 기자들과 일문일답

하되 15년간 점차적인 개방 수순을 밟았고 조심스러운 접근, 정착 과정을 거쳐 외국 로펌과 지역변호사 모두 매우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또 “10년 전에 시작된 일본 로스쿨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로스쿨의 사법트레이닝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곤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실질적인 실무교육, 국제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맞춤형인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여서 IBA가 이를 도울 방법을 연

구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쟁쟁한 경쟁지를 제치고 서울을 선택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엘리스 사무총장이 답했다.

“IBA가 굉장한 고심 끝에 결심했다”며 “대한변협과 서울시의 의지가 강했고 한국법률가들의 열정과 능력에 감탄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대치상황에 있으면서도 인권옹호와 민주주의를 이룩한 모습에 감명받았고 특히 김평우 전 협회장과 최정환 전 이사의 감동적인 프리젠테이션이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청년변호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은 실무능

력을 배가시키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엘리스 총장은 “700여 명의 청년변호사,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 청년변호사 문제를 고민한다”며 “인턴십 기회 제공과 LLM프로그램, 장거리 학습 프로그램 등 실무를 막 시작한 청년 변호사들에게 공부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박신애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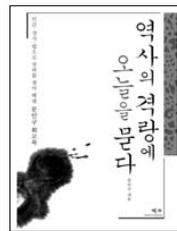
문인구 변호사 회고록 발간...출판축하회 개최



대한변협 제34대 협회장을 지낸 문인구 변호사(조선변호사시험 3회)가 오는 29일 회고록 발간 기념 출판축하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발간된 ‘역사의 격랑에 오늘을 묻다’는 문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상과 생각 등이 담겨있다.

회고록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1장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점으로 있었던 일



을, 2장에서는 육군 법무관과 검사로 재직하면서 겪은 일 중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서술했다.

3장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4장에서는 변호사 단체를 비롯해 법조인 단체에서 활동했던 일을 다뤘다. 특히 이 장에서는 군사독재 정치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상과 생각 등이 담겨있다. 회고록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1장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점으로 있었던 일

했다.

5장에서는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전후에 학술회의를 겸해 중국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6장에서는 변호사들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을 정리했고, 7장에서는 변호를 맡았던 형사사건 중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건들을 기술했다. 이 밖에도 아산재단과의 관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회활동, 상념과 소망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출판축하회 참석을 원하는 회원은 전화(02-737-1278~9), 팩스(02-738-7665) 또는 이메일(jpark0729@naver.com)로 참석여부를 회신하면 된다.

연재소설

글 : 윤상일 변호사 / 삽화 : 이준섭 교수

렉스 휴마노스

무트아,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계약결혼

계약결혼

“와아, 선배님. 무슨 요리인데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한창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나상식이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문을 열어주자 한미래가 특유의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좁은 오피스텔을 가득 채운다. 간혹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뿐 적막하기만 한 작은 오피스텔은 이 순간만큼은 둘만의 풍요로운 성이 된다.

“한변이 좋아하는 전복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지. 물론 전복 내장을 가미한 전복죽도 이미 만들어 놓았고. 자 어서 와서 앉아. 식탁 세팅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한변은 와서 맛있는 전복 스테이크를 즐기면 하면 돼.”

나상식도 한껏 들뜬 목소리로 얼음에 채워둔 와인을 가져왔다.

“와아! 닥터 루젠, 리슬링이네요. 선배님 오늘 조금 과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닥터 루젠, 리슬링은 독일의 닥터 루젠이 생산하는 화이트와인으로 2008년 100대 와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명품와인이다. 밝은 연둑빛이 감도는 연노랑색의 와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동화 속 나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한미래는 늘 그렇듯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들에 감탄한다. 그녀의 그런 말과 행동이 가식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상식은 그녀를 보면 언제나 삶의 운기가 느껴진다. 경쟁에 거서는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다. 경쟁은 물론 해어진 아내의 이름이다.

오늘의 메인 디쉬인 전복은 잘 손질하여 칼집을 넣은 후 버터를 발라 살짝 구운 것으로 한미래가 좋아하는 것이다. 물론 상큼한 과일향과 달콤한 맛의 닥터 루젠, 리슬링과도 어울리는 요리다.

“선배님 이거 또 가락시장에 가서 직접 사오신거죠?”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한 번 물어봐 준다.

“물론이지. 어제 한변이 학교 체벌 사건에서 역사에 남을 명 변론으로 배심원들을 감동시켰다며? 축하해. 자, 건배해야지.”

성매매 사건 변론때 나상식을 추켜세웠던 칭찬을 그대로 돌려주며 나상식은 립부분이 조금 좁고 길이가 짧아 양증맞게 보이는 작은 잔에 리슬링을 따랐다.

“한변의 명 변론을 위하여!”

“고마워요, 선배님.”

한미래는 나상식이 오늘 저녁을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잘 안다. 전복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브로콜리와 당근을 살짝 데친 것 그리고 빛깔이 고운 주황색의 파프리카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맛뿐만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 배려한 것이 틀림없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질



감까지 정말 선배님은 최고의 셰프예요. 원래 이렇게 요리를 잘 하셨어요?”

전복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먹고 한미래는 또 다시 감탄한다.

“하하하, 너무 띄우지마 한변. 어지러워. 그런데 요리는 하면 할수록 오묘한 데가 있어. 마치 종합예술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같기도 하고 말야.”

나상식은 사과향과 복숭아향이 잘 어우러진 리슬링을 한 모금 넘기며 한미래에게

짓 모른 체했다.

“한변, 우리 이러면 어떨까?”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나상식은 준비했던 말을 가벼운 화제인 것처럼 툭 던졌다.

“응, 그러니까. 우리 말야 ‘무트아’를 해보면 어때?”

나상식은 한미래의 조그만 반응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보며 말했다. ‘무트아’란 이슬람교의 소수

“내적 · 외적으로 커플로 인정받되 사생활엔 관여 말자 아이의 호적 · 양육도 한 변호사 원하는 대로 해도 좋아 단, 한 변호사 남자로 인정 받는 무트아만 성사된다면”

장단을 맞춘다.

“요리와 예술이 인생과 닮은꼴인가요?”

“글쎄, 내 생각은 그래. 예술은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것 같아.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재주가 뛰어나거나 어느 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꼭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 평범한 듯 보여도 큰 상처 없이 안정된 일상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리도 맛과 향기, 빛깔과 질감 등 여러 가지가 균형이 잘 맞을 때 예술처럼 좋은 작품이 되는 것 같아.”

나상식은 조심스럽게 요리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말하며 한미래의 반응을 살폈다.

“와아, 역시 선배님은 요리에도 철학이 있으시구나. 정말 대단하세요.”

한미래는 나상식의 요리 철학 속에 자신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지만 짐

파인 시아파에서만 인정하는 일종의 ‘계약결혼’을 말하는 것이다. 나상식이 ‘계약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무트아’라고 한 것은 물론 어감상의 차이도 있지만 한미래 역시 ‘무트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트아요?”

커피를 마시며 한미래는 뜻밖의 단어에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즉각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나상식은 안도하며 밀어붙여 보기로 한다.

“한변도 잘 알고 있겠지만 ‘무트아’는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일종의 계약결혼인거지. 난 전적으로 한변의 결혼관이나 가치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다만 한 가지, 한변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상식이 무주공산이 아니라 ‘한미래의 남자’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야. 한변이 그 사실만 공

식적으로 인정해 주면 다른 모든 조건은 한변이 정해도 좋아.”

나상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한미래는 나상식 같은 남자면 자신의 미래를 맡겨도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다. 아마도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무트아’, 계약결혼이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한미래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나상식이 계약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무트아’라고 한 것도 물론 한미래의 이런 성향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한미래는 이런 나상식이 조금은 알뜰기도 하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는데...

“선배님, 지금도 선배님은 저의 유일한 남자인데 굳이 계약 결혼이라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한미래는 그래도 나상식의 속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음, 그러니까. 계약결혼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다거나 호적상 부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지금처럼 주말만 같이 보내더라도 우리 둘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외부적으로도 예컨대 커플모임이 있으면 당당하게 같이 나가자는 거지. 그 외의 다른 사생활에는 서로 관여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자는 거고.”

“그럼, 선배님. 제가 아이를 갖고 싶다면 허락해 주실거예요?”

한미래는 자신의 최대 관심사를 나상식에게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다.

“물론이지, 그건 나도 원하는 바야. 물

론 아이를 한변의 호적에 올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도 한변이 원하는 대로 따라줄게.”

나상식은 오직 ‘무트아’의 성사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다.

“선배님,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저도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와 와인을 대접받고 제가 단칼에 거절하지는 못할 줄 아신 거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한미래는 쌍꺼풀이 없는 눈을 곱게 한번 흘리고 말했다.

“고마워, 한변.”

나상식은 커피 잔을 한미래의 커피 잔과 부딪친 후 아직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블루마운틴의 향이 입안 가득히 남아 있는 듯하다.

〈끝〉

총북변호사의 특별한 이야기



이태화 변호사

현행 법규에 법정외의 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법정외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법관은 신이 됩니다. 현행 재판제도가 오랜 역사의 산물이고, 지금까지 고안된 여러 방법 중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한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기도 하고, 과연 그것이 인간의 권리구제나 인권신장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보기도 합니다. 인간이 신 또는 신적인 위치에 선다는 것은 어쩌면 신성모독일수도 있고, 그 절대성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신은 한편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오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과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어, 세속의 사법 제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딜레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전제로 3심 제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수식으로 일반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신적인 지위, 그리고 그와 같은 신에 대한 기대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 등의 문제가 비록 크게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에게 그와 같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신적인 존재인 법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뿐이고 당사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재판제 안에서 춤을 추고 기막힌 연극을 하고 있는데, 신적인 존재라는 법관만이 진실과 거짓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재판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행 법제도는 신의 세계에 입증책임과 건전한 상식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신에게 휴식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그렇

만 이는 일반국민이 신에게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의 제국에 들어온 시민은 신에게 절대적인 진실을 갈구하는 것이지, 건전한 상식이나 입증책임 등과 같은 애매모호함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판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엄중합니다. 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한 당사자에게 오판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한 당사자가 느끼는 오판에 대한 관념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라든가 또는 피할 수 없는 오류의 최소한이라는 변명으로 진실을 외면당

변호사들에게 있어 현행 재판제도는 그 신뢰성에 심각한 위기가 닦혔다는 것으로,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판은 인간인 법관에게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순간 낙인처럼 각인된 주홍글씨 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제국에 들어온 신민이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신이 그 신민에게 최소한의 연민을 갈구하는 것과 같이 조금은 소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심각한 불신과 조소의 이유가 법원과 일반 국민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법관이란 존재가 신이 아닌 신적인 인간이어서 최소한의 오판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그 어떤 사람에게든 오판이 없기를 바랄 것이고, 그 결과가 명백히 오판일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진실성이 전달된다면 조그만 위안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내면에 최고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부단한 노력을 한다면, 신적인 존재는 신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신이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인류의 빛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하루빨리 사망한 신이 부활하기를 기다려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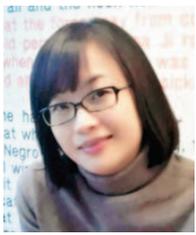
thlee8008@daum.net

신곡 그리고 법관

한 인간에게 준 절망감을 위로하기에는, 재판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절대적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현재 재판제도에서 오판율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비율과는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오랜 경험에서 느끼는 오판율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으며, 그와 같은 오판율이 갖는 의미는 최소한

생각하는 숲



박수연 변호사

다리 감각이 서서히 마비되어간다. 강한 주사약 때문인지 의식이 몽롱해지며 반쯤 잠이 든다. 수술 준비를 하는 간호사들이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아득히 멀어질 때쯤 담당의사가 들어오고 수술이 시작되었다. 녹색천 아래에서 무언가 빠르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과 함께 한동안 배가 흔들리고 무시무시한 석션 소리가 난다.

잠시 후, “아가야 안녕? 어머 예쁘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호들갑스런 목소리에 이어 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린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내린다.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보여주며 “엄마, 예쁜 우리 아가 나왔어요, 눈 떠 보세요” 라고 나를 깨운다. 나를 보는 듯, 혹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 신비로운 눈빛을 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 생명은 눈앞에 있다.

그토록 가슴 설레며 기다려온 얼굴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매순간 완벽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던 10개월간의 놀라운 동거가 끝났다는 사실이 아쉽고,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걸까 감격스럽기만 하다. 아이의 보드랍기 그지 없는 볼에 뽀뽀를 하고 젖을 한번 물린 뒤, 나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자연스러운 출산을 바라며 요가와 호흡법을 열심히 익히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는 일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듯했다.

예정일이 다가와도 아이의 머리가 아래 쪽을 향하지 않아 결국 제왕절개를 준비해야 했다. 생전 처음 수술대에 오르는 것도 무서웠지만,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아이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스마트폰을 뒤적이며 수많은 출산 경험담을 찾아 읽었다. 출산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엄마들은 서로에게 누구보다 다정한 벗이고 조력자였다. 아프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눈물을 찔끔거리며 곧 닥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조마조마 기다렸다.

드디어 출산 당일,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철부지 남편은 출산기념 셀카 찍기에 여념이 없다. 좋은 생각만 하며 긴장을 풀어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병원 복도를 걸어갈 때 들리던 산모들의 고통에 찬 비명 소리,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 갓난아기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몸이 저절로 떨려왔다. 허리가 끊어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엄마들의 모습에 출산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모든 엄마들은 진정 위대하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다. 여기저기 수없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좀 편해지겠지... 그러나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빛나갔다. 모유 수유를 위해 아이가 깰 때마다 수시로 신생아실에 불려다녀야 했다. 또 젖몸살이 나지 않도록 3시간마다 유축을 해야 했다. 제대로 잠을 잘 시간은 거의 없었다.

목도 못 가누는 아이와 씨름하며 서툴게 젖을 물리느라 손목은 시큰거렸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피폐해진 몸으로 새벽까지 젖을 물리며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밤이면 여기저기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로 버티곤 했다. 그렇게 초보 엄마는 2주간의 혹독한 훈련까지 받고서야 비로소 육아의 전장에 나갈 수 있었다.

그때부터가 고되디 고된 육아전쟁의 시작이었다. 아직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는 밤이면 심하게 잠투정을 하며 보채었다. 어르고 달래 겨우 재웠다 싶었더니 야기 침대에 눕히자마자 다시 눈을 번쩍 뜬다. 요즘 아기들은 등에 센서를 붙이고 태어난다더니 사실인가 보다. 뱃속에서부터 손을 타고 나온 것 같다. 밤마다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보듬어 안고 재워주다 보면 환하게 날이 밝아온다. 잠고문이 따로 없다. 엄마된 자의 고단함이란...

그래도 어디에 있다 나타난 것인지, 사랑스럽기만 한 내 새끼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가물가물해진다.

syPark@seoulbar.or.kr

엄마는 괴로워

이 썩셔늘는 주사바늘이 많이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그러나 마취가 풀림과 동시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생살을 찢어 놓을 수 수술 부위 통증과 함께 임신 기간동안 늘어났던 자궁이 본래의 크기로 수축하면서 고통스러운 훗배앓이가 시작되었다. 몸을 일으키는 것도, 코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아야 했다. 무엇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젖몸살 때문에 며칠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엄마되기가 눈물겹게 어려운 일임을 새삼 곱씹었다.

Interview

엔터테인먼트 전문 최정환 변호사

“옆에서 도와주는 최고전문가가 변호사”

최정환 변호사는 국내 연예계를 꽉 잡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변호사다. 그는 강우석 감독과 강제규 감독이 무명일 때부터 인연을 맺어 왔으며 가수 박진영, 비, 유승준의 가수 데뷔를 도와주기도 했다. 강수연, 박상원, 이정재 등 톱스타들과도 돈독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법률시장의 독보적 존재다. 영화, 음반, 뮤지컬 등 모든 분야의 투자계약, 원작사용계약, 집필계약, 출연계약, 배급계약, 비디오계약, 해외수출계약 등 그가 개척한 법률서비스의 각종 형식들이 지금도 교과서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오래 전 한류 열풍을 예측했다는 그는, 요즘 한국의 영화와 음악 그리고 뮤지컬을 들고 세계로 나가고 있다. 그는 또 대한변협의 국제이사로 국제대회에서 영어와 일본어 사용에 막힘이 없다.

그는 세계 각국의 변호사가 된 이민 2세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 23개국에 흩어진 한인변호사들을 규합하기도 했다. 그는 우수한 한국 변호사들이 서초동에서 복닥거리지 말고 세계로 뻗어나가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담동의 한 조용한 음식점에서 그와 밥을 먹은 적이 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있던 A급 탤런트들이 최 변호사의 눈치를 보면서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연예계에서의 그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요즘 대한변협 일을 함께 하는 관계로 친한 사이가 된 최 변호사가 지난달 8일 내사 무실로 놀러왔다. 문득 엔터테인먼트분야의 최고인 그의 경험과 노하우를 빼내서 후배 변호사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욕심이 일었다. 그와 인터뷰를 시작했다. 먼저 그의 인생 배경부터 물었다.

“왜 판·검사를 하지 않고 변호사로 출발했지요?”

“어머니는 집안에 판사가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정해진 궤도 위를 가는 것보다 새 분야에서 치열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국제변호사를 지망했습니다.”

“국내 최대로펌 국제변호사로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셈이죠. 업무의 대부분을 영어로 해야 하는데 그땐 영어에 익숙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매일 밤 11시까지 백인변호사와 되지도 않는 영어로 의견서를 작성하느라고 머리가 뜯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제2외국어도 하나쯤 필요해 새벽시간에 일본어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당시 김앤장의 오너인 김영무 변호사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갖춘 그인데도 손님이 갈 때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문이 닫힐 때까지 머리



를 긁히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봤죠. 도대체 그런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판사, 검사가 된 친구들은 점심 먹고 청사에 돌아갈 때 수위들이 부동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하면 느긋하게 그 인사를 받는 지위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저는 허구헌날

조, 놀란 미국 유명영화사들이 한국의 영화 전문 변호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런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변호사들은 국제통상이나 금융, M&A쪽 같은 일을 하고 싶어했고 ‘판따라’ 쪽 일은 꺼렸죠. 그때문에 신참인 제가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88올림픽 때 한류예감하고 ‘판따라’ 돕는 일 시작 엔터테인먼트법학회 창립, 법률 쟁점 정리해 책 발간 “세계 다녀보니 한국 변호사 우수성 실감...청년 변호사 힘내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절을 하고 있으려니까 차라리 검사로 임관신청을 할까 생각이 들더군요.”

최 변호사의 말이 이해가 간다. 그들은 관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2년쯤 지나니까 영어도 되고 일에도 자신감이 들면서 재미있어지더군요. 변호사는 처음 5년 누구에게 배우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어를 습득하고 자기의 전문분야도 설정하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뛰어들게 된 동기가 궁금했다.

“88올림픽 때 우리의 영화와 음악의 문화시장이 개방됐습니다. 그 전에는 13개 국내영화사들이 외화를 독점수입해서 몇백억씩 벌었죠. 영화 개방을 반대하는 국내영화인들이 영화관에 뺨도 풀고 세계 데모를 했

새로운 분야고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기본적인 용어조차 모르겠더군요. ‘홀드백 피어리어드(holdback period)’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짤때 매니가 미국 측 변호사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더라고요. ‘영화개봉 후 비디오를 내지 말아야 하는 기간’이란 뜻이더군요. 처음 한 일은 미국영화의 국내 배급계약이었어요. 미국 측 계약서는 20~30장인데 한국 측은 딱 한 장에 내용도 없었어요. 그저 ‘충청지역 영화배급을 허락함’ 한 줄이 다였죠. 또다른 일은 수입영화의 불법복제를 막는 것이었어요. 필름을 12개 영화관에만 줬는데 18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일도 있었죠. 불법비디오를 단속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콜롬비아영화사, 20세기 폭스, 워너브라더스, 월트디즈니 등 전부 저 혼자 맡아 처리했죠. EMI, 소니뮤직 등 거대 음반사의 국내법인 설립도

주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화와 음악을 즐기게 됐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금맥을 잡았던 셈이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의 영화사나 음반사 담당자들을 만나 경고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고 받는 사람들이 아무런 법률지식도 없으니까 오히려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자문하더군요. 그러면서 영화 음악계 사람들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지금의 강우석이나 강제규 감독이 그땐 다 무명이었습니다. 배우 박중훈, 이정재, 이병헌, 최진실, 엄정화나 가수 김건모, 박진영, 신승훈도 신인들이었고요. 전속계약 같은 걸 잘못하면 배우나 가수 인생에 엄청난 먹구름이 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도와주다가 친해지자 자기를 모이는 자리에 저를 초대하더군요. 저는 당시 무명이지만 의식 있고 재능 있는 젊은 제작자, 영화감독, 배우, 가수들과 친해지면서 법률적 후원자가 됐죠. 알음알음으로 발도 넓어져 강수연, 황신혜, 최진실, 고소영, 이영애, 최명길, 김희애 등 스타급 여배우들과도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사무실에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새벽 2시까지 연예인들과 술을 먹고 아침 8시에 다시 출근하는 강행군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한류를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할리우드나 외국 팝송들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세계로 진출할 가능성도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에 있으며, 영화나 음악에 관한 기본강의가 많은 뉴욕 대학(NYU)로스쿨로 유학을 떠났다.

“로스쿨에서 엔터테인먼트분야의 기본

법인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상표법 등 기본 과목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법, 방송비즈니스법, 예술비즈니스법 등의 응용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는 그 분야에 관한 법과 판례의 집약이라고 볼 수 있죠. 원작사용계약, 투자계약, 집필계약, 배우들의 출연계약, 배급, 비디오, 해외수출,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전속계약과 그 외 사건사고에 관한 케이스를 실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뉴욕의 대학에 그런 사례들이 집적돼 있었습니다. 혼자 뉴욕의 한복판에서 외국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문화적 소양을 배우게 됐죠.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온 친구들에게서 와인을 배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와 아리아를 따라 부르면서 오페라를 알게 되고 이탈리아 음식, 프랑스 요리도 알게 됐고요.”

유학에서 돌아오니 국내 상황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삼성영상사업단 같은 게 생겼고 대기업도 연예계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분위기였죠. 이번에는 외국이 아니라 한국 기획사를 잡자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영화와 음악산업이 급성장해서 법률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일하던 사무실을 나와 변호사 6명으로 팀을 만들어 국내 거의 모든 음반사와 영화사들의 일을 맡아 처리했습니다. 본격적인 한류 붐을 일으킨 영화 ‘쉬리’, 드라마 ‘대장금’ 등의 해외수출계약도 담당했고 드라마 ‘겨울연가’의 음악저작권 분쟁, 가수 비의 월드투어공연 계약관련 자문 등을 담당하면서 한류에 대한 법률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영화나 음반뿐 아니라 미술품 거래, 스포츠, 게임,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쪽에서도 일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왔죠.”

그의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어떤 것일까.

“플래닛할리우드 레스토랑 설립을 위해 브루스 윌리스, 스티븐 시걸과 직접 만나 협상했던 일, 마이클 잭슨의 집을 방문해 그와 직접 내한공연 계약을 체결한 일, 국내 리조트 건설 및 투자를 위해 사우디의 알 왈리드 왕자 궁전에서 왕자와 협상한 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의 뮤지컬 붐을 가져온 해외 유명뮤지컬 라이선스를 위해 협상하던 일들이 기억나네요. 특히 당대 최고의 가수이던 백지영씨가 매니저에 의해 비디오유포사건이 터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섹스비디오를 미국의 서버에 올려 국내에 돌게 만든 거죠. 당사자들이 정작 피해자인데도 방송국에서는 혼전섹스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준다는 명목으로 방송출연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론에 저항해서 그들이 비난받는 걸 막아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사건전말을 발표했습니다. 음란물 배포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을 구속시키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대항한 변호사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셈이 됐죠.”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을 지망할 변호사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현재 그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국내 교육과정은 있나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로스쿨에서 과목도 없고 관련된 책자도 없었습니다. 기존의 계약서 양식이나 법률문서들은 모두 제가 만든 게 샘플로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했던 변호사 몇 명과 2007년 엔터테인먼트 법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자기의 진료와 치료경험을 콘퍼런스에서 발표하듯이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경험한 현업 변호사들이 모여 자기케이스를 서로 발표하게 하고 법적인 쟁점들을 정리해 책도 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요청이 들어와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새로운 분야의 개척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형 콘텐츠의 해외수출이 ‘한류’의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인의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의 제작으로 우리 엔터테인먼트가 발전해 가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영화, 음악, 공연, 미술, 온라인게임 등 전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일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거나 뒤쳐졌던 법률분야도 더 개발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백남준씨의 작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작품으로 사용된 텔레비전 제품 30개 중 한 개가 고장이 났을 때 손도 대지 못하도록 돼 있는 외국 계약서 등이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이죠. 또 예술품이 배로 오는 도중 파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저쪽 요구에 사인만 했지 리스크를 검토하고 수정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술관의 큐레이터들을 초청해 강의도 듣고 법적분야에서 할 일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외국 계약서들은 그들의 오랜 경험과 법률적인 문체점들을 집약한 겁니다. 외국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면 계약서상의 문구들이 왜 들어갔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들을 파악해야 우리 쪽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지난 3년간 대한변협 국제이사를 맡으며 국제변호사조직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세계변호사협회(IBA), 로아시아(Law

Asia) 등 국제변호사조직에 한국법조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나름 애를 썼습니다. 현재 교포 변호사들이 23개국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그 나라로 가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지의 변호사가 된 사람이죠. 김평우 협회장 시절 이런 변호사들을 한데 규합해서 세계한인변호사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상당 수의 변호사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런 모임을 만드니까 무척 좋아하더군요. 그동안 홍콩, 싱가포르, 도쿄의 경쟁을 물리치고 IBA의 아시아 사무소를 서울에 유치했고, IBA 콘퍼런스와 로아시아 콘퍼런스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제 그의 성장배경과 사고방식을 물어볼 시간이다.

“영월의 시골의사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약사 출신이시고요. 할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의사를 하셨죠. 그런데 저희 집안은 이상하게도 단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41세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39세 때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조부와 부친의 너무 짧은 삶을 목격하면서 고장된 긴 궤도를 가기보다 현재를 자유롭게 즐기며 살자는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영월에서 검정고무신 신고 발가벗고 떡 감으며 노는 시골아이로 자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돈암동에서 약국을 시작했고 약국에 딸린 방에 식구들이 함께 살았죠. 저는 매일 아침 다섯시에 일어나 약국 문을 열고 카운터에 앉아 박카스도 팔고 생리대도 팔았죠. 어머니 혼자 버시느라고 생활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제가 학원장학금을 받아 공부에 큰 장애는 없었습니다.”

항상 던지는 질문. 그에게 변호사란 어떤 것일까.

“저는 비즈니스 변호사로서만 살아왔습니다. 변호사는 전문성을 추구해야 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기획사 사장자리 제안도 많



“변호사는 전문성을 추구해야 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았지만 그때마다 사양했습니다. 변호사는 틀을 짜주는 사람이기 휘젓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전문가로 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한국 변호사의 세계진출에 대해서도 물었다.

“한류 콘텐츠와 관련해 외국에 나가 협상도 해보고 계약도 여럿 체결해 봤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발표도 많이 해 봤습니다. 나가서 싸워보면서 내린 결론이 한국의 변호사들이 외국변호사들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처럼 많이 공부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경우가 없더군요. 적어도 동양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중 한국변호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변호사들보다는 영어도 잘하고, 중국변호사들보다는 국제감각이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세계최고 수준의 우수한 집단이면서도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국내 법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서초동에 목을 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눈을 세계로 돌려야 합니다. 세계의 법률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엄상의 공보이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시행 안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제화·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 하며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법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처리 과정

- ① 신청 접수(우편·방문)
- ②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 검토
- ③ 심사결과 상임이사회 상정 및 의결
- ④ 신청자 결과 통지(등록증 교부·대한변협신문 공시)

◆ 신청 분야(최대 2개 등록 가능)
-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등록 유효기간: 5년

◆ 등록 신청비: 1개 분야당 100,000원

※ 협회(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0-353899,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로 등록신청비를 송금하시는 경우, 입금여부를 협회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우편번호: 137-885

◆ 연락처

- 전화 02)2087-7723, 팩스 02)3476-4008
- 이메일 jdchang78@koreanbar.or.kr
- 담당자: 주임 양희창(법제과)



양삼승 변호사의 法街散策

변호사를 위한 변론

법조3륜에 대한 우리 시대의 화두는 ‘법조 깎아내리기’이다. 과거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의 발로이겠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권위마저도 부정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3륜 중에서도 공권력이 없는 ‘변호사 직업’에 대한 폄하는, 서운함을 넘어 울분을 자아 내기도 한다. 오늘은 변호사라는 직업의 애환 몇 가지를 적어 봄으로써 서로의 위안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변호사라는 직업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아니하여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부러워한다. 다만, 자기의 ‘소송 의뢰인과 동료들과 법관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둘째, 변호사에게는 정년이 없으므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언제까지나 일할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한다. 물론 규정으로 정해진 정년은 없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본인과 같은 연배의 동료, 친구 등등이 이런저런 사유로 직장을 떠나 사회활동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면, 변호사 역시 ‘자연스럽게 은퇴’의 길을 가게 된다.

셋째, 흔히들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물론 상위 몇 퍼센트의 소수는 많은 수

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겠다. 그러나 과반이 훨씬 넘는 대부분의 경우는 결코 풍족하지 못하다. 나이가 좀 더 크게 보면, 현재 변호사 수 1만2000명 정도의 우리나라 법률시장 전체 규모는 연간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10대 로펌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1000억원을 넘기 어렵다. 이 정도의 ‘매출액’은 웬만한 중견기업의 매출보다도 작고, 연간 2조~3조의 시장규모는 대기업, 예

‘선임한다’는 말 대신에 ‘산다’고 표현한다. 많은 의뢰인들, 특히 지적수준이 낮은 의뢰인들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에 대한 개념구분이 없다. 수임단계에서 기껏 두 개념을 설명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도,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끝나지 아니하면, ‘착수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기 일쑤다.

반면 일이 잘 끝난 경우에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거나, ‘변호사의 기여도’를 따지고 들기 시작한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malpractice(위법행위)를 문제 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의뢰인들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거부하고, ‘이기적이고 아전인수적’인 생각에 빠져있

연’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학적으로 받아들인다. 바라건대,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전혀 비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정한 치유기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데, 이유는 바로 그 운명을 스스로 불러들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의뢰인들이 선선히 깨우쳤으면 하는 것이다.

다섯째, 제한된 경험과 짧은 경험에 선배와 동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들로 변호사 직업의 ‘음지’를 쓰다듬어 보려 하였으나 오히려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차라리 ‘양지’를 부각시켜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 낫겠다. 젊은이들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가장 큰 공익적 동기는 ‘사회를 합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렇다. 변호사가 수입에만 몰두하고, 개인적 안일에 집착하는 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직업적 만족도도 떨어진다.

세상에는 가장 무서운 2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출세를 포기한 공무원’이고, 다른 하나는 ‘돈벌이를 포기한 변호사’이다. 여기에 우리 변호사들이 살아갈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뢰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공익을 위하여서도 헌신하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를 (혁명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사회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

ssyang@hwawoo.com

우리 직업의 명과 암 그리고 애환

를 들어 삼성전자의 연간 ‘순이익’보다도 훨씬 작다. 발품 팔고, 글 쓰고, 열변을 토하는 것으로는 큰돈을 벌 수가 없다. 돈 버는 데에는 물건 1개에 10원을 남기더라도 1억 개를 만들어 파는 것이 훨씬 낫다.

넷째, 변호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권력이 없거나 큰 수입을 못 올린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움을 구하여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이다. 흔히들 변호사를

는 경우이다. 노력해도 설득되지 않는 때가 많다.

이런 때에는 책에서 읽은 여러 말들이 생각난다. 즉 ‘인간은 그 자신에 대해 정직해질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 할 때는 언제나 윤색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또는 ‘우리는 종종 자신의 판단 오류로 나쁜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불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든가 아니면 ‘삶은 우연과 필연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독 ‘우

법조기자실



안준용 조선일보 기자

검찰 수난시대다. 그들 눈에 ‘다 큰’ 경찰은 “한판 붙자”며 대문을 뽕뽕 걷어차고 있고, ‘꼼수’를 외쳐대는 인터넷 방송은 “놀아 달라”며 사사건건 시비다. 또 한 쪽에선 집권을 확신하는 야당이 “(검찰의) DNA까지 바꿔놓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옆집 법원은 예나 지금이나 “우린 노는 물이 다르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무슨 미운 털이 박혔는지 검찰 기사는 간혹 나오는 미담에도 악플이 반일만큼 여론이 매섭다.

취재 도중 만나는 검사들의 한숨도 늘었다. 최근 검·경 갈등과 관련해선 “아들이 대든다고 아버지가 내치면 되겠느냐”는 근엄론부터 “우리 조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라는 회의론, “때려잡을...” 류의 격앙론, “이럴 줄 알았다, 드디어 올 게 왔다”는 운명론까지 그 반응도 다양하다.

각기 다른 말이지만 그 속에는 일관되게 ‘위기의식’이 흐르고 있다. 작년 6월부터 검찰을 출입한 연식 9개월의 법조 기자가 검찰 조직을 어찌 다 안다고 하겠느냐만 사방에 적을 둔 그들의 ‘위기의식’에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막상 요즘 검찰 내부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눈에 띈다. 검사들은 목소리 높여 살 길을 도모해야 한다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검찰 수사관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쪽은 ‘조직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는데 다른 한 쪽은 ‘강 건너 불 구경’이다.

“국가수사국? 생기면 좋지. 지금처럼 검사가 다 할 필요 있나” “대검 중수부로 가고 싶다는 사람 많아. 가서 좀 적응하다가 폐지 되면 또 쉬고, 편하지 않겠어?”

검찰 수사관들이 화김에 내뿜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 개개인이 검찰 조직에 느끼는 소외감과 서운함

남겼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수사관은 “한상대 총장이 내세운 검사 직접조사에 대해 검사들 불만이 높아지니 주요 업무를 수사관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뉴얼에는 검찰 실무관 업무에 ‘방문 변호인 등에 대한 음료 제공 등 비서업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일선 실무관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한 실무관은 “우리가 커피 타는 기계는 아닌데, 알아서 해오던 일을 문구로 규정해 굴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검찰 수사관 직제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1995년 검찰사무직·보건복지부·경찰·군 출신 경력자들을 뽑아 신설한

기사라도 나오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이 또한 수사관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모 부장검사는 직원들이 들을까봐 지시사항을 쓴 쪽지를 직접 검사들에게 건네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물론 검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젊은 검사가 나이 든 수사관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수사 정보가 흘러나갔을 때는 기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직원을 의심할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바탕에 깔린 ‘불신’이다.

한 특수부 수사관은 “많은 검사들이 우리 사정을 들어주고 이해하려 하기보다 업무시간에 노는 건 아닌지, 외부에 수사 정보를 흘리고 다니지 않는지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다른 형사부 수사관도 “그저 ‘검찰’이라는 자부심을 공유하면서 동료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말뿐이라도 “검찰 직원들의 처우와 사기에 신경을 써 달라”던 어느 국회의원의 발언이 와 닿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국의 검사 수는 1800여명이고, 수사관은 그 세 배쯤인 5500여명이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 조직은 ‘이원화’를 넘어 ‘이분화’돼있다. 가족조차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조직이라면 그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검찰은 외우(外憂)를 마주하기 전에 내환(內患)·내홍(內訌)부터 다스려야 한다. 검찰 조직이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함께’ 여야 하기 때문이다.

jahny@chosun.com

※ 위 내용은 이 신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검찰, 변화·개혁 이전에 해야 할 일

이 최근 조직 위기와 맞물려 견잡을 수 없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지난 연말 대검은 ‘형사부 검사실 업무분장 매뉴얼’을 내놓았다. 검사가 공소장, 불기소장은 물론 범죄인지서, 보도자료 등 각종 서류의 초안 작성을 수사관에게 모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전국 각지의 일선 수사관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에 매뉴얼을 성토하는 글을 수십 개씩 올리며 즉각 반발했다.

한 수사관은 “참담한 심정이다. 앞으로 검찰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고, 또 다른 수사관은 “차라리 물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까지 매뉴얼에 넣어라”는 댓글을

‘마약수사직’이 대표적인 예다. 작년 창원지검 프로축구 사건에 이어 최근 대구지검 프로스포츠 사건 첩보를 인지하면서 강력부 수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은 실제 대부분의 강력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약범죄가 아니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원 259명에 현재 14명이 초과된 상태다. 한 마약 수사관은 “인사 적체로 40대 중후반이 돼야 7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일반 검찰사무직과는 달리 ‘특별승진’도 없다”며 “승진이 안 되다보니 사기가 떨어지고 검찰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처우가 열악한데 소속 부서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안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I 일 정

- 3월 19일(월) ~ 3월 30일(금) : 신청자 접수
- 4월 11일(수) : 연수개시일
- 4월 12일(목) ~ 4월 16일(월) : 반 편성 등 교육준비
- 4월 17일(화) : 오리엔테이션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공식적인 일정은 4월 11일이 시작일이며, 종료일은 10월 10일입니다.

II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신청서 1부
(연수서약서, 이력서, 사진 반명함판 3매 포함)
- 변호사시험 합격증 사본 1부(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제출)
※ 연수 신청서류는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로만 가능합니다.(이메일의 경우는 사진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연수신청서, 연수서약서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나. 연수비 납부

- 연수비는 30만원이며, 연수 신청 시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입금하여야 함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 / 계좌 : 신한 100-027-997113)
- 입금 시 연수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2-2087-7742, 7744로 연락바랍니다.

III 연수과목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 / 변호사 개업실무 / 민사소송절차 개관 / 전자소송절차 개관 / 민사 임대차 / 민사 부동산등기 / 민사 대여금 및 연대보증 / 가사 이혼 / 보전 개관 / 보전 가압류·가처분 / 민사집행 개관 / 민사 부동산 경매 및 채권집행 / 손해배상 / 상사 / 형사 수사절차개관 / 형사(고소장·영장실질심사) / 형사 재판절차 개관 / 형사(사기·폭행) / 행정소송절차 / 헌법소송절차 / 도산 / 노동 / 조세 / 지적재산권 / 금융 및 자본시장 / 기업자문 / 계약서 검토 / 언론소송 개관 / 환경소송 개관 / 법정 화법 및 변론술 / PPT / 법률문장론 / 변호사 진로(사내·공익변호사) 등

※ 강의 상세일정은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참조

IV 연수장소

- 연수는 서울 서초동 소재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강의실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